

통일부, 다음달 초 한강하구 생태조사 착수...남측 지역 우선 조사

입력 2020-10-27 08:57:39 수정 2020-10-27 11:11:54

정치



통일부가 다음 달 초, 남한 지역 한강하구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에 나섭니다.

통일부는 오늘(27일) "한강하구 우리 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11월 초 개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 조사 일자를 소관 군부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태조사는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한 이후, 후속 심층조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및 실태 파악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일부는 "2018년 공동수로조사 이후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 심층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우리 측 습지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사 실시 기관이 국립생태연구원인 만큼 생태와 관련된 생태 환경에 중점 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측에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함께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간 소통의 통로가 막혀있어서 최근 이 문제를 가지고 북측에 제의한 바는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우리 측 수역, 우리 관할 구역만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후속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